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What If···)’

영상 프로젝트 결과 브리핑

환경운동연합, 2014년 11월

#배경

- 한국 원전, 왜 ‘안전’하다고만 하고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은 배제하는 걸까. 2014년 4월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주민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주변 30킬로미터로 확대됐지만 방재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원전 주변에 400만 명 이상이 밀집해 거주해있지만, 방호약품이나 방재훈련을 비롯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 사고와 고농도 방사능 오염으로 현재까지 13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체르노빌 사고와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사업자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진지한 원전안전 대책을 세우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뒷전이다.
- 온라인 영상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제기한다. 2014년 6월 수백 명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경주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회원대회를 갖는다. 이번 회원대회는 ‘만약 월성원전에서 정말 사고가 발생한다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원전사고로 인한 재앙과 혼란을 연출해 한국 사회에 노후원전 폐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 퍼포먼스로 진행한다.

#제작에 참여해주신 분들



- 총연출: 김환태 감독 (연출작품 <잔인한 내림 유전>, <핵마피아>)
- 총괄PD: 황혜림 PD (연출작품 <저수지의 개들>)
- 참여 감독: 안해룡, 최윤만, 이강길, 이진우, 복진오, 이선호 / 자문: 김영우 프로그래머
- 담당: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부장, 최준호 국장(중앙사무처), 이상홍 국장(경주), 문의 02-735-7000

#촬영과 결과물

- 촬영 일시: 2014년 6월21일 토요일 오후 - 6월22일 일요일 오전
- 촬영 장소: 월성원전 주변 해변과 도로 / 경주 보문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일부 촬영
- 출연 참가자: 환경운동연합 회원 약 400명
- 출연 참가자 사전교육: 6월21일 토요일 저녁 8시10분(30분) '감독들과의 미팅'
- 결과물: 최종영상(7분7초, 10월7일 후원행사 상영)과 예고편 영상(1분26초, 9월12일 공개)¹
- 최종영상 포맷: Windows Media Audio/Video File, 7분7초, 1920x1088, 192kbps, 48kHz, stereo(A/V) 1-pass CBR

#장면 구성과 메시지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도로)

- 옥내 대피 방송 '가만히 있으세요'

¹ 유튜브 링크. 본 영상 <http://youtu.be/Jb-7AIXyBNA> 예고편 영상 <http://youtu.be/Jb-7AIXyBNA>

- 부족한 보호장구를 놓고 싸우는 시민들
- 탈출하는 주민들, 도로 정체로 차량을 포기하고 걷거나 뛰어서 피난하는 행렬
- 앰블런스마저도...
- 방호복 입고 사태 수습에 나서지만 혼란에 빠진 공무원(직원)
- 방사능 측정 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계측기가 시끄럽게 경고음 울림)

죽음의 행렬(도로)

- 피난 행렬 중 흰색 가면과 해골 의상을 입은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해변)

- 해변에서 집단 퍼포먼스, 원전을 향해 'STOP'

#우리의 메시지

- 노후원전에서 대형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대형사고' 시나리오 없는 안전대책은 기만이다)
- 원전사고방재대책은 대형사고가 불러올 끔찍한 피해에 비해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
- 사고수습에 있어 원전안전당국과 운영사는 무능하고 은폐를 일삼으며, 결국 국민생명보다는 '이익'을 우선한다
- 방사능은 단순히 '제거'될 수 없고 고농도 오염이 확산될 경우 '피난'만이 살 길이다
- 과거 대형원전사고에서 정부가 신속.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건강피해와 혼란이 가중됐다
- 현재까지 경험과 증거에 비추어보면, 한국은 이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게 확실하다
- 대피시 혼란은 불가피하며, 이런 혼란이 피해를 더 가중시킬지 모른다
-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원전 폐쇄다. 특히 노후원전은 당장 폐쇄해야 한다

#추진 경과

- 5월29일 제1차 기획회의, 황혜림 피디, 김영우 프로 참여(6월5일 제2차)
- 6월11일 제3차 기획회의, 총연출에 <잔인한 내림-유전> 김환태 감독 결정
- 6월19일 제5차 기획회의, 촬영계획 확정(6월13일 제4차 회의, 촬영계획 초안 마련)
- 6월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 회원대회 촬영(~6월22일, 2일)



- 8월5일 점검회의(황혜림 피디)
- 8월28일 제작진-환경운동연합 전체 미팅(티저영상 검토 및 향후계획 점검)
- 9월4일 예고편 최종본 제작(9월11일 1차 계약금 300만원 지급)
- 9월12일 예고편 공개와 모금함 개설, 전국 안내와 지역별 회원대회 참여자 리스트 확인 · 수정
- 10월7일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상영

#모금과 지출

- **온라인 모금:** 온라인 모금 플랫폼 소셜펀치(<http://socialfunch.org/whatif>)에서 10월10일까지 255,000원을 모금(8명 참여), 9월30일까지 해피빈 352,900원을 모금(59명 참여) 등 온라인으로 총 607,900원을 모금.
- **후원:** 아름다운재단 노후원전 폐쇄 홍보 사업비 1,500,000원
- **지출:** 제작비 5,000,000원(미정)원 및 촬영 물품 460,000원 등 총 5,460,000원 지출.

#영상물 이렇게 활용해주세요

- 각 탈핵 관련 캠페인과 행사에서 영상물로 활용: 거리 서명 캠페인, 노후원전LOCK 페스티벌(10.18), <굿바이 오! 고라> 기획공연 및 전시(11.15) 등 행사에서 상영
- 원전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민 영상 제작 활성화를 위한 참고영상으로 활용
- 탈핵 시민 교육과 강연과 연계 활용

